



중국 장쑤(江蘇省) 양저우(揚州)의 강두구 자동차산업단지 내 위치한 지우롱(江龍) 자동차 공장 중 프레스(금형) 공장 내부 전경.

# 중국 완성차 업체 광주 유치 눈앞... ‘자동차 100만대’ 성공 신호탄

## 광주의 미래 자동차산업밸리

### 제4부-중국 지우롱자동차 공장 유치 속도(상)

광주시가 추진중인 미래자동차 산업밸리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직까지 정부의 자동차 100만대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중국 완성차 업체인 지우롱(江龍)자동차가 광주에 연산 10만대 규모의 완성차 생산 공장을 조성하는 투자협약을 이끌어내는 등 광주시가 사업 성공을 위해 한 걸음씩 차분하게 내딛고 있다. 특히 지우롱자동차 투자유치는 중국 자동차 기업이 국내에 대규모 완성차 공장을 건립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국내 자동차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 중국 지우롱자동차는? 2007년 설립 승합·소형버스 등 금형·엔진·시트까지 직접 생산

광주시-지우롱자동차 투자협약 2020년까지 2500억 투자를 할 하반기 상업용차 생산 전차 등 年 10만대 생산 신규 고용 창출 6천명 기대

중국 지우롱자동차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 이상배 전라산업국제부시장 겸 총경 주시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부품업체가 많아 협약대로 공장 설립과 완성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우롱 자동차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최종 목표인 만큼 자동차산업클러스터가 잘 조성되어 있고, 산학연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광주가 투자 최적지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지난 5년간 한국 시장을 조사했다. 처음에는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겨냥했지만, 지난 2014년부터 글로벌 자동차시장 추세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면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과정에 한국 정부에서 광저우 자동차 100만대 생산(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광주에 주목했다.

광주시는 엔진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제주도에서 자유지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향후 수출시장까지 겨냥했을 때 광주시가 목표량이 인접했다는 데 주목했다.

▲향후 투자 추진 계획은? ▲우선 오는 5월에 광주시를 방문해 직접적인 투자계획 등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초기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부터 광주 공장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광주시의 연인원 체들과 협력해 연립까지 차량 부품은 KD방식(반제품)

“광주 車클러스터 등 완벽...투자 최적지”

린취안홍 중국 지우롱자동차 국제부 사장 겸 총경리

중국 지우롱(江龍) 자동차 린취안홍(49) 국제부 시장 겸 총경리는 지난 21일 “광주 시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부품업체가 많아 협약대로 공장 설립과 완성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우롱 자동차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최종 목표인 만큼 자동차산업클러스터가 잘 조성되어 있고, 산학연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광주가 투자 최적지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지난 5년간 한국 시장을 조사했다. 처음에는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겨냥했지만, 지난 2014년부터 글로벌 자동차시장 추세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면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과정에 한국 정부에서 광저우 자동차 100만대 생산(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광주에 주목했다.

광주시는 엔진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제주도에서 자유지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향후 수출시장까지 겨냥했을 때 광주시가 목표량이 인접했다는 데 주목했다.

▲향후 투자 추진 계획은? ▲우선 오는 5월에 광주시를 방문해 직접적인 투자계획 등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초기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부터 광주 공장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광주시의 연인원 체들과 협력해 연립까지 차량 부품은 KD방식(반제품)



중국 지우롱(江龍) 자동차 린취안홍(49) 국제부 시장 겸 총경리는 지난 21일 “광주 시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부품업체가 많아 협약대로 공장 설립과 완성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우롱 자동차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최종 목표인 만큼 자동차산업클러스터가 잘 조성되어 있고, 산학연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광주가 투자 최적지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자의 배경으로 광주시의 확고한 의지와 완벽한 여건을 꼽았다.

지우롱차는 5년 전부터 한국 진출 모색해왔으며, 다양한 검토와 접촉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운 시장의 국내외 전기차 기업 유치 시한문 이후 투자자의 기대감을 높였다.

지우롱차 측은 광주에 부품 등 연산임과 우수한 연구기관, 대학 등이 두루 잘 갖춰져 있어 여기에 지우롱차의 능력이 결합하면 세계시장에도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를 갖고 있다.

어우양광 부사장은 “3개월 전 광주시 대표단이 지우롱자동차를 방문했을 때 그들의 열정과 의지에 감명을 받았다”며 “광주시의 친환경자동차 산업의 육성 의지를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광주시 순경중 자동차산업과장은 투자유치 과정에서 링거를 맞으면서 중국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대거 투환’으로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감동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지우롱차의 광주 투자 의향은 메이드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하려는 지우롱자동차, 자동차 100만대 조성사업을 통해 자동차산업 르네상스를 이루려는 광주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광주시 관계자는 “자동차 공장이 해외로 나가는 상황에서 광주에 설립된다는 점과 중국기업이 국내 최초로 광주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우리 지역이 자동차

으로 돌아와 한국 소비자 취향 등을 테스트한 뒤 내년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 한국 정부로부터 전기승합차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공장 완공까지는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2017년부터는 15~18인승 전기승합차 E6의 양산체제를 본격적으로 가동할 계획이다.

▲광주 투자는 ‘메이드 인 코리아’(Made In Korea)를 통해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세계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삼으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당연하다. 한국 현지화를 통해 까다로운 한국 소비자를 충족시킬 수 있는 품질 인증을 받게 되면 한국 내 현지 판매는 물론 유럽과 미국 등에 수출 판로가 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광주에서 차량을 생산하게된다면, 자동차 부품은 어떻게 조달할 계획인가?

▲우선은 중국에서 일정 부분을 한국으로 가져가 한 톨기 조립할 예정이다. 하지만, 전기승합차의 중요 부품인 배터리는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게 되고, 부품도 가능하면 한국 현지에서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광주에 좋은 기술을 갖고 있는 협력업체들이 많고 있다고 들었다. 그래서 높은 기술력을 보유한 파트너를 찾을 것이다. 성능과 가격 등을 비교해 좋은 협력업체들과 합작 파트너를 만들어갈 계획도 갖고 있다.

▲현재 중국 근교에 임근과 한국 근로자들의 임금이 이가 크다. 어떻게 임금 수준을 맞출 수 있나?

▲문제를 많이 인식하고 있다. 중국 현지 직원들도 일부 지 상향을 많이 인식하고 있다. 중국 현지 직원들도 일부 대러갈 계획이지만, 여력이 한국 내 근로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면서 맞춰갈 계획이다.

▲투자에 앞서 광주시와 한국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한국은 뉴에너지 자동차에 대한 정책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한국시장에 접근한 것이다. 하지만, 전기차 보조금 지원 정책 등이 매년 들쭉날쭉한 것이 우리에게 불확실성을 주고 있다.

중국 정부는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해 지원 정책이 확실히 하고 있다. 한국 정부도 기업이나 소비자들에 대한 전기차 지원금 정책을 확대하고, 일관성 있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최근 기자가 ck@kwangju.co.kr

친산업의 최적지라는 병종이다”며 “지역 현안인 자동차 100만대 사업의 성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지우롱차 투자 유치에 속도 =광주시는 지난 20일부터 23일까지 광주시 이상배 전라산업국제부시장 겸 총경 주시에는 우수한 기술력을 갖춘 부품업체가 많아 협약대로 공장 설립과 완성차 제작을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지우롱 자동차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자동차를 생산하는 게 최종 목표인 만큼 자동차산업클러스터가 잘 조성되어 있고, 산학연 협력이 잘 이뤄지고 있는 광주가 투자 최적지라고 생각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광주시의 투자협약을 체결하게 된 배경은? ▲지난 5년간 한국 시장을 조사했다. 처음에는 디젤·가솔린 등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을 겨냥했지만, 지난 2014년부터 글로벌 자동차시장 추세에 따라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면서 방향을 전환했다. 이러한 과정에 한국 정부에서 광저우 자동차 100만대 생산(지)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광주에 주목했다.

광주시는 엔진차 뿐만 아니라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 분야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다. 제주도에서 자유지도 생각해봤다. 하지만, 향후 수출시장까지 겨냥했을 때 광주시가 목표량이 인접했다는 데 주목했다.

▲향후 투자 추진 계획은? ▲우선 오는 5월에 광주시를 방문해 직접적인 투자계획 등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초기에 한국 법인을 설립하고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오는 7월부터 광주 공장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광주시의 연인원 체들과 협력해 연립까지 차량 부품은 KD방식(반제품)

▲양저우 = 클·사진 좌편원기자 cki@kwangju.co.kr